虎鳴山에 서다

-韓國에너지協議會 會員社 産業視察에 參加하여-

金 穡 玉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弘報委員〉

호랑이가 울었다던 虎鳴山.

이제 猛虎는 자취를 감추고 그가 놀던 자리에 俗世의 나그네들이 찾아 왔다.

한국에너지협의회의 회원사 산업시찰단 일행들이다.

6월17일, 초여름의 날씨는 화창하게 개어 있었다.

일행을 태운 버스가 南楊州를 지나자 시원히 뚫인 京春街道와 길 양옆으로 어울어져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일행을 반겨 준다.

금곡과 평내, 마석을 거치고 다시 강줄기를 따라 동북진하면 清平水力發電所의 위용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다가오고 脫都市의 유쾌함에 취한 일행은 「카 스트레오」의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여기서부터 清平揚水發電所 까지는 불과 20분 거리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일행은 清平揚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와 전력사정을 화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고, 同乘한 徐丙球 韓電技術(株)고문(前춘천수력발전사무소장)으로부터 揚水發電所 건설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11시30분. 漢江水力 洪思禹處長과 清平揚水 孔昭烈소장의 영접을 받으며 우리 일행은 강당으로 안내되었다.

孔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韓電의 現況 슬라이드를 시청하고 漢江系水力發電所 현황과 청평양수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설명에 의하면 清平揚水發電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위치하며 시설용량은 20만 KW 2기로 40만KW이다.

이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純揚水式 地下發電所로서 清平湖의 물을 下部 貯水池로 이용하고, 표고 535m의 虎鳴山 頂上에 人工으로 上部 貯水池를 축조, 240만8천톤의 물을 끌어올려 貯水하였다가 필요할 때 이 물을 떨어 뜨려 그 落差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6시간 발전으로 240만 Kwh를 생산한다고 한다.

揚水發電은 原子力發電所와 같은 大容量設備가 系統에 들어옴에 따라 深夜의 남아 도는 전력을 저장하는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다. 즉 原子力發電所는 需要에 따라 始動하거나 停止하는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때의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청평댐의 물을 虎鳴山 꼭대기의 상부 저수지로 양수했다가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이 물을 다시 청평댐(下部貯水池)으로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서 電力의 負荷率 改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揚水發電機는 하나의 설비를 가지고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물을 끌어 올릴 때는 揚水機가 되고 그 물이 放流될 때는 發電機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발전소는 75년 9월에 착공하여 80년 1월에 준공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으며 연인원 95만명과 6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大役事였다는 설명이다.

우리 일행은 발전소측에서 준비한 헬멧을 쓰고 지하발전소로 안내되었다. 여름인데도 시원한 冷氣가 도는 이곳은 표고 -10m로 인천 앞바다의 海水面보다도 10m 아래로 내려간 곳이다.

일행중 누군가가 「여기 직원들은 피서갈 필요가 없겠다」고 했더니 안내자는 「건강한 사람도 햇빛을 못보면 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로 이곳의 근무환경이 어려움을 들려 주었다.

다음 목적지는 上部 貯水池가 있는 虎鳴山 이다.

綠陰에 덮인 山勢는 평온해 보였으나 九折羊腸의 산길은 가파른 오르막 길이다. 그 길을 달린지 10분, 드디어 우리는 앞이 탁 트이는 頂上에 섰다.

虎鳴湖 맑은 물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잔잔한 물결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다.

八角亭에서 내려다 보는 山河의 絶景도 壯觀이려니와 우람하게 솟아있는 기념탑의 수려함이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어떤 이는 손을
어떤 이는 목숨까지를
거족적 발전 의지에 고스란히 바치며 청평의 물을 끌어 올려 虎鳴湖 만들어서 과학의 맨처음이 天池 이루어 놓았나니 앞으로 여기 올 永遠의 자손들이여 이 앞에 옷깃 여며 이 뜻 받아서 이 겨레가 더 잘 살길만을 찾을지어다. 찾아서 끊임 없이 나갈지어다. 」

未堂 徐廷柱의 竣工記念頌을 읽으며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 앞에 합장했다.

虎鳴湖를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 出口에 韓電 殉職社員 慰靈塔이 서 있다. 정말로 어떤 이는 손을, 어떤 이는 목숨까지를 고스란히 바친 순결한 그들의 넋이 이 湖水 가에 머물러 있을까. 착잡한 마음으로 塔身을 쓰다듬는데 동행한 K씨가 카메라의 셧터를 누른다.

이제 下山 시간인가 보다. 慰靈塔 위로 날으는 산비둘기에게 무심히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한다.

오후 1시 淸平 湖水가에서 점심을 즐겼다. 배가 고픈 탓도 있겠지만 이곳의 생선회는 천하일품이다. 생선의 선도도 나무랄 데 없거니와 초장 맛이 가히 최고라 할 만하다.

풋고추·들깨잎이 후원에서 뜯은 것이라니 말 그대로 자연식품이요. 민물고기의 생선 튀김도 고소함이 그만이다.

杯復一杯하니 절로 丈夫의 氣가 솟는다.

大丈夫! 그렇다. 우리는 곧 죽어도 大丈夫들이다. 南怡장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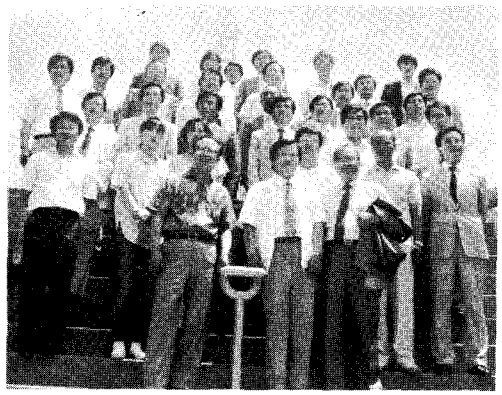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男子가 二十歲에 나라를 平定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大丈夫라 하겠는가고 오기를 부리고 있지만 나라 平定이 뭐 그리 대스러운 일인가.

이래뵈도 우리는 「에너지」라는 國家基幹 産業을 맡고 있는 役軍들이 아닌가.

움추린 가슴을 펴고 큰 소리로 人生을 노래해야 한다.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 오누나…」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權兄의 호방한 노래 소리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글을 적는다.

유익한 기회를 마련해 준 韓國에너지協議會 金相演 사무국장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거듭 경의를 표한다.